

총대의원회와 공개기구, 보궐선거로 4월 출범

각 당선자들, “늦은 만큼 하루빨리 정상화에 주력”

4월 11일에서 12일까지 총대의원회(이하 총대)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선거가 치러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올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했다. 총대를 포함한 공개기구 선거는 대의원들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는 총 재적인원 142명 중 119명(83.8%)이 투표에 참여했다.

총대의 투표결과 찬성 106표(89.1%), 반대 12표(10.1%), 무효 1표(0.8%)로 '바우의 임수빈(기계 4) 후보가 총대부의장에 당선되었다. 임수빈 당선자는 “참여해주신 대의원들께 감사하다. 평년보다 늦게 선출된 만큼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바우 총대의 공약인 '대의원 커뮤니티'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 대의원들의 폐쇄성을 강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임수빈 당선자는 “그런 종류의 커뮤니티는 아니

다. 스누라이프나 고파스처럼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닐 것이며, 대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커뮤니티도 계획하고 있다”고 뜻을 밝혔다. 박수현 당선자는 “대의원들이 대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의원학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대의 체질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복위의 투표결과 찬성 107표(89.9%), 반대 11표(9.2%), 무효 1표(0.8%)로 'THE'의 이동규(IT응용 4) 후보가 정위원장에, 육선미(산경 3) 후보가 부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이동규 당선자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모든 공약들을 최대한 빨리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한 THE 학복위의 공약인 '의료업체 협력'의 진행에 대해서는 “이미 리베이트 등의 문제 요소를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초적인 서류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업체를 선정하여 총학생회와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당



선자들은 다른 공약들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선거기간 중에 공약들의 사전작업이 진행됐고, 공약 중 하나인 ‘한성대IN’과 연계한 대여물품 현황 알리는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졸준위의 투표결과 찬성 102표(85.7%), 반대 15표(12.6%), 무효 2표(1.7%)로 '케미'의 한광희(경영 3) 후보가 정위원장에, 윤예린(산경 3) 후보가 부위원장에 당선되었다. 한광

희 당선자는 “기쁘지만 늦은 만큼 더 빠르게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국원들이 모집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업무에 나설 것”이라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한편 케미 졸준위의 주요공약인 ‘졸업앨범’이 졸업생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동떨어졌다는 물음에는 “물론 취업 지원과 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약들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졸업앨범은 다

른 학교에 비해 수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뒤처져있다. 졸업앨범은 대학생활의 매듭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앨범디자인팀 운영에 관련해서는 “디자인 전반은 전문업체에 맡길 것이다. 앨범디자인팀은 예술대학의 국원들을 중심으로 조직될 것이며 디자인 검수를 맡아 최대한 만족스러운 앨범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지면안내

보도 02
학사구조개편안 발의, 6월말 최종 확정될 예정

사회 03
2년, 세월호가 가라앉은 시간

사람나 05
유승희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나다

학술 06
네트워크, 모든 것은 연결된다

문화 07
대중에게 다가온 예술, 공방문화

동정란

이충진(기초교양교육과정)교수 이 교수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기념하는 저서 '가만히 있는 자들의 비극 - 세월호에 비친 한국사회'(Cup&Cap, 2016)를 출간했다.

이종복(전자정보공학)교수 이 교수는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는 Computation Tools 2016 국제학술대회에서 "A Perceptron-Based Task Predictor for Multi-Core Processor Architecture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사령

임정기자 김민서(무역 3) 이주형(국문 1) 문지수(영어영문 2) 유동현(영어영문 2)
퇴수습기자 조성미(경영 1)

학교축제, 5월 아닌 종합관 완공 이후로 계획돼



▲2015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대동제의 모습이다

올해 학교축제는 종합관이 완공될 8월 이후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중점으로 준비된다.

손성민(경제 4) 총학생회장은 “작년에는 해당년도 내에 종합관 완공 예정이 없어 협소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8월에 종합관이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연거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에 대한 축제 구상을 밝히며 “본교 학생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지역 상권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가닥을 밝혔다. 그밖에도 한성여자중학교와 본교의 유사한 동아리가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축제 공연을 풍성하게 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이미 여중과 대학축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비교과 포인트 획득과 동아리 활성화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이어 “대학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주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학교축제를 그 일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추가적인 구상에 대해서 “메디컬 마케팅 업체인 MN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들은 축제 때 부스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의료상담과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2016학년도 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특수대학원(야간)

학위명	대학원명	문의처
박사	일반대학원(박사)	02-760-4271
석사	일반대학원(석사)	02-760-4271

특수대학원(야간)

학위명	대학원명	문의처
석사	경영대학원	02-760-5844
	행정대학원	02-760-5845
	예술대학원 /패션디자인기획학과 /뷰티예술학과	02-760-4097 / 02-760-5970
	국방과학대학원	02-760-4318
	지식서비스 & 컨설팅대학원	02-760-5987
	부동산대학원	02-760-5876
	교육대학원	02-760-5878

원서접수 및 발표

▶ 접수기간
2016.5. 9(월) 10:00 ~ 5. 16(월) 17:00

▶ 접수방법
대학원홈페이지
(http://gs.hansung.ac.kr)
모집요강 확인 후,

유웨이어플라이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접수

▶ 면접전형
2016. 5. 21(토) 10:00 (학과별 변동가능)

▶ 합격발표
2016. 5. 21(토) 16시 이후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학사구조개편안 발의, 6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

(표1) 기존의 학사구조

단과대학	학과(부)	
인문대학	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학
		문헌정보학
	영어영문학부	
	역사문화학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부동산학과	
	경영학부	
	부동산세무경영학과	
	패션학부	
예술대학	회화과	
	무용학과	
	응용디자인학부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공과대학	뷰티디자인학과	
	컴퓨터공학부	
	전자정보공학과	
	IT응용시스템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표2) 현재 학사구조개편안 (현재 명칭은 모두 가칭이며 추후 변경 가능)

단과대학	학과(부)	
크리에이티브 인문예술대학	창의문화학부(통합모집)	기존 인문대학 3개학부(4개전공) 통합
	예술학부	회화과 무용학과
사회융합대학 (통합모집)	기존 5개 학부(과) 통합	
디자인대학 (통합모집)	창업디자인학부	
	글로벌패션비즈니스학부	
IT융합대학	뷰티메니지먼트학과 (주·야 각 10명 규모 신설/외국인·재직자 대상)	
	(통합모집)	컴퓨터공학부(트랙구성)
		전자·기계학부(트랙구성)
	(전계열대상모집)	미래융합학부(트랙구성) IT응용시스템공학 산업경영공학 스마트컨설팅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 위 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교육부컨설팅에 따른 학사구조개편 교수 설명회'의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한 사안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2018년에 있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사 운영의 변화와 정원 배정

본교 학사구조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모집 단위 광역화와 대학의 특성화'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각 단과대학은 학과(부) 및 전공별 모집이 아닌 단과대학별 혹은 통합된 학과(부)로 학사 운영을 한다. 또한 트랙 및 학과(부) 통합 개념 등을 적용하여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전공 간의 통·융합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2>는 기존의 학사구조와 개편안의 학사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개편안으로 학사구조개편이 진행될 경우 IT융합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의 정원 감축과 이동이 동시에 이뤄진다. 1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인문대, 사회과학대, 예술대학의 예상 총 정원 중 124명이 IT융합대학으로 이동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김동환 교수는 "교육부컨설팅에서 요구한 학사구조개편의 방향이 '모집 단위의 광역화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인재육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원 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결국 학사구조개편은 교육부가 제안하는 대학의 '특성화'를 반영한 결과이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을 진학하는 신입생 수의 감소와 대학 자체의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학의 특성화가 필요한 학교를 선정하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

이번 설명회에서 김동환 교수는 기획협력처장 전주상(행정학과)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모 교수는 "현재 주·야간의 정원 감축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가장 먼저 질문했다. 이에 대해 기획협력처장은 "교육부의 PRIME 사업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야간의 정원을 더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또 다른 교수는 "현 개편안이 다음 대학구조평가에서 통과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환 교수는 "현재로서는 '최소기준점'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손성민(경제 4) 총학생회장은 "학사구조개편안의 진행을 주시하고 있다"며 "다른 학교에서 있었던 학사구조개편으로 인한 재학생의 피해나 비상식적·비논리적 개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개편안에 학생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현재는 개편안이 수정되고 있는 중이므로 이를 계속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측에 전달하고 반영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장은 "학사구조개편이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본교 발전가능성을 최대한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윤 기자 psjy7795@hansung.ac.kr

제20회 한성대학교 무용경연대회 열려

지난 4월 23, 24일 양일에 걸쳐, 본교 낙산관 대강당에서 한성대학교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본교 무용학과가 주최하고,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개인과 단체를 합쳐 총 548팀이 참가하였다. 23일에는 한국무용(초등부), 현대무용(초·중·고등부), 발레(초등부) 부문 경연이 열렸고, 24일에는 한국무용(중·고등부), 발레(중·고등부) 부문으로 경연이 열렸다.

대상 수상자는 본교에 입학 시에 입학년도 1학기 수업료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개별종목 최우수자 각 1명은 입학년도 1학기 수업료의 반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박재홍(무용학과) 학과장은 "이 대회의 취지는 무용학과를 홍보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다. 또한 올해에도 비교적 우수한 참가자들이 많았다"며 심사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 대회는 공정한 심사로 여러 무용 콩쿨 중에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식 기자 warmhello@hansung.ac.kr

교원양성교육과정 심성 교육 특별강연 열려

지난 4월 25일 미래관 ELC에서 '복된 선생님의 길'을 주제로 교직 특강이 열렸다. 이 특강에는 교직이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에서 인천대학교 이윤식(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는 '리더십'과 '학생에 대한 사랑'에 대해 설명하며, 복된 선생님이 되기를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김다혜(인제 2)학생은 "동영상 자료를 통해 강연을 해주셔서 흥미로웠고 재밌게 수업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특강을 주최한 교양교직과의 신재홍 교수는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에게 예절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예비교사로서의 교육적 덕성을 지닌 예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강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성미 기자 seongmi16@hansung.ac.kr



학술정보관에서 외국학술도서 전시회 열려

지난 4월 27일 부터 28일까지 2일간 학술정보관에서 외국학술도서 전시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약 1500권의 외국도서가 전시되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추천도서를 추후 구비할 예정이다.

문지수 기자 answltn15@hansung.ac.kr

2016년 제11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너답게 사고하라! 너를 표현하라!"

대회 내용

- 대상 : 한성대학교 재학생
- 목적 :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확장 및 글쓰기 능력 향상
- 일시 :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4시 ~ 오후 6시
※ 실제 글쓰기 시간 100분
- 장소 : 낙산관 대강당
- 주제 : 대회 당일 현장 공지

신청 및 시상

- 신청 기간 : 5월 2일(월) ~ 5월 18일(수)
- 신청 방법 :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신청
- 준비 사항(대회 당일) : 신분증(학생증 혹은 주민등록증), 필기 도구(볼펜 사용)
- 시상 내역 및 상금 : 1) 최우수상 : 1명 - 상금 40만원
2) 우수상 : 4명 - 상금 15만원
3) 장려상 : 8명 - 상금 5만원
- 유의 사항 : 대회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칠 경우 출석 협조문 발급 가능
- 포인트 지급(비교과) : 최우수상 60점, 우수상 50점, 장려상 40점, 참여 20점

※ 문의: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02-760-4354), 이메일(writing@hansung.ac.kr),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 자유게시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2년, 세월호가 가라앉은 시간

남겨진 유가족들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지난 4월 16일 오후 7시 세월호 2주기 추모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행사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노란 우의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였다. 모인 인파는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들어차있었다.

떠나보낸 세월호

2년 전 4월 16일 인천에서 출발한 세월호는 제주도를 향하던 중,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탑승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되었다. 사건 발생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작업을 펼쳤지만, 사망자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뉴스 화면을 보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53년에 있었던 창경호 침몰사고 이후 최대의 참사였다.

정부와 해경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시간동안 초동대응에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나 공식반응을 내놓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답하는 등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빈축을 샀다. 최근에는 사태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 있었던 대화 음성파일로 공개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파일에는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양측의 대화내용이 상세하게 나타나있다.

정부는 대역을 써서 대통령이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공식적인 사과를 회피하는 등 잘못된 대처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편성되어 구조 활동을 계속했지만, 생존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의 난항

이처럼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의회 역시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피해자 단체가 제시하는 방안이 덧붙여지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별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민간 진상조사기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에서는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민간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에서는 헌법에 어긋나는 수사기구라며 반대했다. 서로간의 대립이 치열해지자,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이 국회 앞에서 여당의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논란은 3개월 동안 계속 되었고, 10월 31일에 이르러서야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활동기간 18개월 ▲유가족 동의를 전제로 특검 후보군 추천 ▲피해자 배·보상 문제 즉각 처리 등이다. 가장 치열했던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는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발생한 위원회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가라앉은 배

유가족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세월호 인양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중국 상하이셀비지 사와 인양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선체 곁에 구멍을 뚫는 등 기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인양은 본래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장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하여 7월 말까지 연기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우려곡절이 많았다. 14년 11월에 수색 중단이 결정된 이후, 15년 4월에 인양에 대한 계획이 나왔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인양을 하면 작업 중에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 인양을 하지 말고 사건이 일어난 바다 주변에 추모공원을 설립하자"고 발언해 유가족들의 질타를 받았다.

올해 3월 29일에 있었던 세월호 특조위의 2차 청문회에서는 15년에 정부가 인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인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양수산부가 영국의 인양 컨설팅업체 'TMC'에서 인양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년 11월부터 5개월간 인양 가능성 검토를 이유로 인양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이었다.

세월호는 다시 떠오를까

이렇게 세월호 사건 후 발생한 추가적인 문제들은 유가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었다.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무더들 때문에 발생한 비난 여론도 감내해야했다. 이들에게는 힘겨운 2년이였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만류기간을 앞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두고, 활동을 연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세월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 사건은 아직 사건 당시에 대한 인과관계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동안의 세월호 선장 재판과, 최근 있었던 세월호 특조위의 특별 청문회 등에서 나온 증인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가장 중요한 승무원들의 증언 등은 이제야 확보되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2년 동안 침몰해왔던 세월호는 과연 다시 떠오를 수 있을까? 유가족들의 슬픔이 그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박종민 기자 toad1013@naver.com

2014

04.16 세월호 침몰

05.19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발표

05.20

피해자 유가족의 박근혜 대통령 국민담화에 대한 입장발표

06.02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06.10

세월호 선장과 선원에 대한 첫 재판

10.31

세월호 특별법 합의

2015

04.16

세월호 1주기

04.22

세월호 인양 결정

2016

04.16

세월호 2주기

알아라방

저작권 위반으로 경찰 조사까지?

저작권법 바로 알고 대처하는 법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경찰서에서 출석 하랍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게시판엔 이런 고민이 자주 올라온다. 한 해 저작권 위반 건수가 2003년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한 이래, 최근에는 10만 건에 육박한다. 저작권은 블로그, 카페, 동호회 게시판, 사내 내부통신망 등을 가리지 않는다.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파일'이라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최신영화 한 편을 업로드했다.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런데 A씨의 재미는 오래가지 못했다. 영화제작사 대리인이 고소장을 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를 하게 되면 권리침해가 된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것도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할 점을 감안한

'선처'였다.

B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의 주제를 블로그에 올렸다. 방문자들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해두었다. 그는 돈을 받지 않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B씨도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저작권은 불편하고 피곤하기만 한 걸까.

저작권법(제30조)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구입한 음악을 MP3로 바꾸어 듣는거나 영화 CD를 구워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를 복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판매하는 행위, 또는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은 권리침해로 본다. 저작물의 복제는 개인용도로 쓸 때만 인정된다.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 네티즌 사이에서는 선행일지 몰라도 저작권자에게는 권리 침해로 다가올 수 있다. 참고로, 노래 파일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노래를 들려주거나 가사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뜻한다. 저작물이란 무엇일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구체적으로 소설, 시, 논문 등 어문 저작물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건축, 사진,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술가나 전문가의 창작물만 저작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에 올린 개인일기, 사진, 어린이의 그림 등도 저작물로 보호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최근에는 저작권자나 법률사무소 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거나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법원의 판례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적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에 파일 한두 개 올린 것 정도로는 법률적으로 수백만 원을 물어줄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정중하게 사과하되, 거액의 합의금은 거절하거나 금액 조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리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신문기사를 블로그나 게시판에 기사를 퍼오는 것도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얻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개인

의 글이나 사진에도 엄연히 저작권이 있다. 무료로 사용하라고 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동의나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상업성이 없어도 마찬가지다. 만일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저작권법 위반 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공소제기 요건인 범죄)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거나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마무리를 짓는 방법이 있다.

저작권법은 다소 현실성이 없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현실을 반영하는 법과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법을 떠나서 남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창작물을 우리는 대가없이 너무 쉽게 쓰고 있는 건 아닐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겠다.

김영국 (법원공무원, 법률칼럼니스트)

의화정

국내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작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2주간 기후변화 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전 세계 195개국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 파리협약이다.

파리협약을 통해 각국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9세기 말보다 섭씨 1.5도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급세기 후반까지 '탄소제로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화 이후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는 점점 다양한 형태의 기후변화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열파, 태풍, 홍수 등의 기상이변, 기온상승과 해수면상승, 전염병확산, 생태계파괴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은 인류생존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단적으로 세계 기온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던 해가 2015년이고, 두 번째로 더웠던 해가 2014년이며, 가장 더웠던 해들 대부분이 2000년대에 분포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공동의 노력에 나서기로 한 약속 즉 파리협정이 만들어진 2주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로 일컬어지고 있다. 올해 4월 22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75개국 대표들이 미국 유엔 본부에서 파리협약에 공식 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미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온실가스감축'이라는 국가목표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감축목표도 제시했고 협약

에도 서명한 이상 이제 모든 주체가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노력을 기울여야 하면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와 삶의 질 향상은 저탄소사회로의 진입에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영국 수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은 1936년 영국 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머뭇거리, 미봉책, 임시방편, 나중으로 미루는 식의 방법들이 통하던 시기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곱씹어봐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윤경준(행정학과교수)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

삼학송

이제 dot자리를 말아야겠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지나갔다. 더불어민주당의 제1당 등극과 새누리당의 급격한 추락. 16년만의 여소야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결과를 제대로 예측한 언론도, 전문가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자처하는 모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dot자리를 말아야겠다'는 전문가의 발언이 있었다. 민의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정치공학에 치중된 것에 대한 자조 섞인 반성이었다.

문제는 여론조사기관의 잘못된 예측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들은 조사방식부터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유선전화 위주의 조사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무선전화를 사용하고, 유선전화를 폐기하는 추세다. 특히 젊은이들은 유선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사방식은 노년층이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안심번호 제도다. 이는 휴대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휴대전화번호를 조사기관이 알 수 없도록 해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현재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쓸 수 없고, 정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되어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표본 집단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응답자의 선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위와 같은 과도한 제도적 규제가 여론조사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총선이 진행되는 내내 수면엔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여론조사기관의 문제를 키운 것은 여론조사에 대한 언론들의 맹신이었다. 이번 여론조사 실패에 대해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여론조사방식에 대한 문제는 언론들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런 문제들을 비판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높은 신뢰도를 보였던 여론조사기관들을 여과 없이 믿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흘러들어난 잘못된 정보는 모

든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잘못된 조사방식으로 만들어진 정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사, 여론조사기관들의 합작으로 가장 신뢰받는 정보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 흐름에 편승하면서, 오판이 진실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다.

총선결과가 나온 이후, 대중들은 위와 같은 이 사실에 경악했고,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에 대한 분노와 의심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데이터에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여론조사기관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집단의 사주를 받았다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5일에는 충청북도 청주권의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엔 대통령 선거다. 이미 여론조사기관들은 유력한 예상 후보들의 지지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언론사들은 이 자료들을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 자료들을 믿어야 할까? 그리고 이들에게 남은 신뢰성이 있을까?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민의를 대변하고자 노력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들은 이미 신뢰를 받고 있다는 오만에 빠져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여론조사의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규제완화를 통해 모든 기관이 안심번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언론사들과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런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속상한 일은 없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믿어준 대상이 모두를 속였다면, 그 실망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줬던 만큼 이들이 반성하고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종민 편집국장 toad1013@naver.com

기자수첩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자꾸만 불안한 감정이 든다면 내 마음이 왜 불안한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지 생각해야 한다. 생각의 꼬리를 물다보면 그 끝을 찾게 되어, 오묘한 내 감정의 뿌리를 찾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길거리를 가득 채운 소음과 계속해서 무언가를 알리는 스마트폰, 전광판에 뜨는 광고 등이 생각을 어지럽힌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취업을 하려면 스펙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해선 시험, 과제, 스터디... 그 숙제는 끝이 없어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끝이 난다.

우리를 둘러싼 피곤한 일상들과 과도한 요구들 외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많이 있다. PRIME 사업,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사과정개편논의 등 대학가에 퍼진 거대한 변화는 우리들을 더욱 숨 막히게 만든다.

이렇게 숨 막히는 틈바구니 사이에서 떠오르는 내 생각조차 지켜내기가 어렵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생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비슷한 상황에 생각을 대입하고 만다.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어설픈게 해결하고 마는 것이다.

문자수 기자 (영어영문 2)

낙산에 올라

지난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이번 총선은 이번의 연속이었다. 대승을 자신하던 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반면 야당은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됐다.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끌어낸 원동력은 투표율의 상승이다. 이번 20대 총선은 58%의 투표율을 보였다. 19대 총선 투표율(54.2%)보다 높은 결과이다. 고무적인 것은 그간 저조한 투표율로 비판받았던 20대의 투표율이 크게 상승된 것으로, 출구조사 기준으로 49.4%를 기록했다. 특히 사전투표자 중 20대는 2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대의 높은 투표율 상승은 예상과는 전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강도 높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라는 말이 증명된 것이다.

이는 시선을 쬐며 우리학교를 바라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5년, 투표율 저조로 총학생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뼈아팠다. 학교 측의 정책변경에 학생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학교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도 속 시원히 알기 힘들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총학생회가 2년 만에 들어서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총학생회는 인터넷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학생

들과 소통하고 있다. 어떤 사항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 바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해당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한다. 우리 한성인들에게 의견을 내고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생긴 것이다. 앞으로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한성인들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다.

투표가 우리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해 있는 부분인지는 이런 우리학교의 달라진 모습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투표는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꾼다. 내년에는 드디어 대선이 돌아온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시영 (국문 4)

독자칼럼

진정한 대학의 낭만을 담을 수 있길

얼마 전 CLUB EXPO라고 인쇄된 전단지 가 학교를 뒤덮었던 적이 있다. 지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던 동아리 박람회에 대한 홍보 포스터였는데, 여러 혜택과 이벤트, 공연이 함께한 큰 행사였다. 필자 또한 잠시나마 동아리에 몸담았던 적이 있고, 현재 한성대학교 기반 또 영상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라, 많은 관심이 갔던 행사였다.

동아리 박람회가 끝난 그 다음 주에 나온 한성대신문 512호에는 사진 한 장, 기사 4줄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과연 교내에서 이 행사가 그 정도 비중을 불과한 것일까.

동아리는 대학 문화의 중심이자, 대학 생

활의 낭만으로 불리어져 왔다. 현재의 사회 상황이 낭만보다는 스펙을, 동아리보다는 스터디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에 여러 동아리들이 남아있는 것은 그러한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무리들이 남아있어서라 생각한다. 한성대신문 512호는 그러한 '무리'들의 니즈를 무시한 것이다.

특히 신입생들에게 있어 동아리에 관련된 정보들과 행사들에 대한 전달은 이 시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 동아리에게 있어서도 신입 부원들을 받고 한 해를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사진과 간단한 기사 몇 줄은 어떠한 역할을 기

대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 또 동아리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자 콘텐츠가 한성대신문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호의 구성은 매우 실망스러울 뿐이다.

512호의 문화면을 보면 '한성대 골목의 숨겨진 재미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기사가 등장한다. 내용을 보면 세 장소에 대한 홍보로 밖에 안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 팀 자체가 이렇게 큰 지면을 할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는 구성이다. 이런 진부하고 지루한 콘텐츠 대신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문화'에 대한 기사가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황재영 (국문 3)



포토 에세이

지난 4월 11일 미래관 앞에 설치된 세월호 관련 서명운동 부스에서 한 학생이 서명하는 모습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IVF가 주최했으며, 세월호 인양 및 진상규명 촉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성미 기자 seongmi16@hansung.ac.kr

유승희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나다

"청년들 모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난 4월 13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우리학교가 속한 성북갑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승희 현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한성대 신문사에서 유승희 당선자와 소속 정당의 공약과 포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려 당선자를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당선자의 생각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었다.

Q. 여론조사에서의 열세를 뒤집고,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과반수 달성은 물론 원내 제1당 역시 실패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당선자의 생각은 무엇인가?

A. 성북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은 현명하고, 민심이 정말 무섭고 냉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체감했다. 선거 기간 동안 슬로건이 '무능 불통정권 견제! 더불어 잘 사는 성북'이었는데,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민주화 약속을 지켜 경제적 약자, 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역할을 확신했다.

Q. 최근 정부에서는 '반값등록금이 사실상 달성되었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 이것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총선에 등록금에 대한 공약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당선자의 생각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무엇인지?

A. 2030 청년유권자들의 참여가 결국 총선의 승패를 갈랐다. 앞으로 정치권이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민심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참여를 선택한 젊은 유권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질문과 요구를 많이 들었다.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했지만, 실제 줄어든 금액은 28%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대학부터 등록금을 반값이 아니라 1/3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공약했다. 저는 등록금 인하와 함께 고등교육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또한 청년주거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Q.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등록금 관련 공약을 냈는데, 이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각의 시선이 있다. 반값등록금을 국공립대학에만 국한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공약에 건 것은 과거 공약에 비해 후퇴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정치권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야당 혼자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제1당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여당과 협의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정책수혜의 체감 정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의 42%뿐이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들었다. 일단 큰 틀에서 청년들에게 교육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20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Q. 공약 중 학자금대출 무이자자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당선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자금대출 무이자에 따른 추가 소요액 2,100억 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A. 말씀 드렸듯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큰 틀은 정해졌고 바꿀 수 없다고 본다. 학자금대출 무이자 등을 더불어민주당이 힘껏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른 재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한 법인세를 인상해서 복지재원을 확보하면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결국 재원확보는 선택의 문제다. 19대 국회에서 연간 6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납세책임을 강화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법'을 발의했다. 아쉽게 19대 국회에서는 통과 못했지만, 정치권의 결단을 통한다면 충분히 추가 소요액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Q. 현재 대학의 기능이 취업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초학문이 대학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대학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대학 전반에 프라임 사업 진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는 학교가 적지 않고, 성북구에



있는 대학들 역시 이런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한 당선자의 생각은 무엇인가?

A. 민주주의의 퇴보가 경제퇴보를 가져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또다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야기한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정치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경제민주화도 실현할 수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화두를 정치권에 던지고, 법 재개정에 나섰다. 일부는 성과가 있었다. 같은 측면에서 인문학의 위기, 기초학문의 위기가 초래할 결과는 막대하다. 애플이 아이패드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로에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이러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애썼다. 인문학과 같은 기초학문이 튼튼해야 그 위에서 산업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현재 성북구는 대학가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한성대학교 내에서도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교수들이 있는데, 성북구 소재 대학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해 당선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성북갑 지역구에 대학이 5곳이나 있다.

따라서 대학가 주변 상권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북갑 지역에 곧 경전철이 완공되는 만큼 역사권과 맞물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Q.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당선자의 의견은 무엇인가?

A. 청년고용할당제는 향후 3년간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3%에서 5%로 올리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민간 기업에 대해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통해 약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이 역시 정부의 의지 문제이고 실현가능하다고 본다. 경찰, 소방, 사회복지, 교육 등 공공부문이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렇게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Q.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재 상황 속에서, 청년고용할당제 외에 당선자가 생각하는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은 무엇인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의

무할당제, 실노동 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다. 청년층 일자리의 35%가 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비정규직 청년의 20%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간수탁기관에서 청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해도, 좋은 일자리가 9만개나 생긴다. 공공부문부터 나서서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Q. 앞으로 한성대학교 학생 및 성북구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선거를 준비하면서 청년정책 여론조사, 청년토론회를 통해서 2030세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취업이 걱정인 20대 중반의 딸아이의 엄마로서도 청년문제에 대해 공감한다. 이번 선거에서 청년들의 열망을 오롯이 체감한 만큼 국회에서 이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성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성북구 대학생 여러분들 역시 늘 열정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박종민 기자 toad1013@naver.com

2016-1 학습법 워크숍

교육역량개발센터에서는 매학기 학습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습법에 관련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역량강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성공을 이끄는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

강사: 박수빈(imakeme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대표)
 일시: 2016년 5월 19일(목) 16:00~18:00
 장소: 미래관 ELC

< 내 능력을 200% 활용하는 기말고사 공부전략 >

강사: 오정숙(대구대학교 교수)
 일시: 2016년 5월 26일(목) 16:30~18:00
 장소: 미래관 B104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교내 홈페이지]-[공지사항]
- 참여 시 비교과 포인트 부여 및 <2016 학습법 노트>, <2015-2 나만의 학습전략 노하우 공모전 수상집> 증정
- 문의 : 교육역량개발센터 (미래관 B105, 02-760-4451~2)



네트워크, 모든 것은 연결된다

복잡계 네트워크(Complex System Network) 이론과 현대사회

어느 집단 내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먼저 집단 내의 구성원들 간에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집단 내에서 소위 '마당발'로 불리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 <그림1>과 같이 인간을 점(node)으로, 그들 간의 연결을 선(link)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통해 누가 '마당발'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처럼 인간관계도 하나의 네트워크(Network)로 볼 수 있다.

1967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은 '좁은 세상 실험(Small-world experiment)'을 통해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6단계의 사람을 거치면 모든 사람과 안면을 틀 수 있음을 증명했다. 흔히 '여섯 단계 분리'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2004년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의해서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수행됐다. 한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3.6명(중위값)만 거치면 모든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네트워크의 의미를 인간관계에 적용했다. 인간관계 외에도 현실의 많은 것들은 주변의 구성요소들과 다양하게 연결되어 '복잡계(complex system)'를 이룬다.

많은 구성요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복잡계'는 190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과학이론이다. 과거 과학자들은 현상 안에서 어떠한 규칙이나 법칙을 찾아볼 수 있다고 믿거나, 세상을 확률에 따른 우연의 산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종래의 이론들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complex)' 현상들이 나타났고, 복잡계는 물리학계의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복잡계는 그 명칭만큼이나 설명하기가 매우 난해하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계도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점과 선으로 세상을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복잡계 현상들도 결국은 구성요소들(node)이 연결(link)되어 있는 네트워크(Network)이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그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무작위 네트워크(Random network)'(<그림2>)이고, 다른 하나는 '척도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그림3>)이다. 두 형태의 차이는 '허브(Hub)'의 유무에서 나온다. 허브란 연결된 노드가 가장 많은 노드이다. 위 인간관계 망에서의 '마당발'이 허브인 셈이고, 따라서 허브는 전체 네트워크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현실의 많은 네트워크들은 두 가지 중 어느 형태가 많을까? 정답은 척도없는 네트워크다. 척도없는 네트워크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곧 허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브의 출현으로 시스템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네트워크 체계가 견고해졌다. 허브만 존재하면 전체 시스템 자체가 고장날 확률은 적어진다. 이런 특성은 물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 분야에도 폭넓게 활용됐다. 백신연구도 그 예이다. 제약회사는 대상 바이러스의 신진 대사 중에서 연결중요도가 높은 허브를 공격하도록 백신을 설계한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구 성공률이 높아졌다. 이처럼 백신연구 분야에서도 바이러스의 신진대사 구조나 백신의 화학적 구조를 일종의 복잡계 네트워크로 바라본다.

비단 과학이나 공학의 영역에서만 복잡계 네트워크가 활용된 것은 아니다. 경영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복잡계 네트워크가 활용됐다. 먼저 물류운송 부문에서도 '허브와 바퀴살(hub-and-spoke system)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택배회사들이 대전이나 옥천에 허브터미널을 둬으로써 엄청난 배송비 절감과 효율화를 이뤄냈다. 항공사들이 허브공항을 두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마케팅 부문에서도 허브가 성과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이럴 마케팅 기법을 사용해 제품을 홍보하려면 허브를 통해 화제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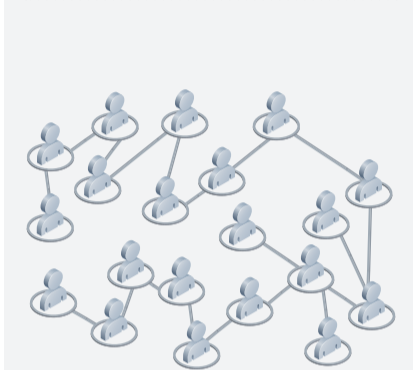
이외에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히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 또한 활용사례가 된다. 모든 사물들을 노드로 보고 이를 인터넷이라는 링크로 연결해 나가는 것으로 사물인터넷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또한 충분히 많은 양의 연관된 데이터를 모았을 때, 새로운 규칙이나 정보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계 네트워크와 유사점이 있다.

이처럼 복잡계 네트워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된다. 물론 복잡계 네트워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세상을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은 자못 분명해 보인다.

김민식 기자 warmhello@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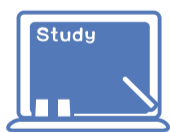
[그림 1] 인간관계 망



[그림 2] 무작위 네트워크



[그림 3] 척도없는 네트워크



이런 공부 어때?

나은미 교수의 '나를 위한 글쓰기'

최근 갭이어족(Gap year)이 늘고 있다. '갭이어족'이란 퇴사 후 자아 발견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는 사회 초년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현상에 대해 함인희(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위의 기대에 맞춰 자라는 20대들이 서툰 즈음에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도전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갭이어족 증가는 이런 한국 사회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자아성찰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나를 위한 글쓰기'에서의 '글쓰기'는 이 자아성찰을 위한 수단이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글쓰기를 통해 '나'에 대해 거리를 두고 관찰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한다. 따라서 이 강좌는 결과물보다 자기 탐색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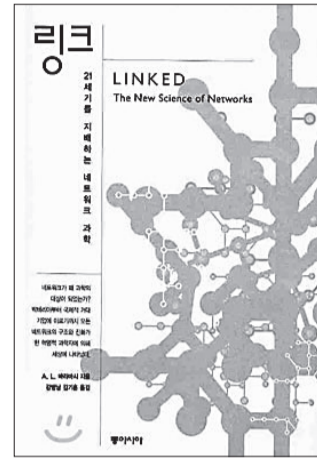
'나를 위한 글쓰기'는 표현주의 이론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표현주의란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과 창조를 강조한 쓰기 이론이다. '나를 위한 글쓰기'에서 말하는 글쓰기의 목적은 개인의 내적 성찰과 성장, 자기 정체성 확보다. 그리고 글쓰기의 재료는 글을 쓰는 개인의 창조적 경험이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모든 사건들로 정의되며 이는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과거 사건에 있었던 자신의 문제점을 찾는다. 그와 동시에 즐거운 추억도 회상하며 그 사건의 즐거운 이유를 찾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에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다.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탐구할 때,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참고하며 과거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 나은미(사고와 표현 교육 과정)교수는 "20대에게 과거에 대한 일회성 회상은 그 의미가 작다"며 "과거 회상을 통한 행복한 미래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과학'을 연결하는 열다섯 개의 마디



링크 :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저자 : 알버트 바라바시
출판사 : 동아사이
출판일 : 2002. 10. 24
책소개 : 『링크』는 현대 사회에서 네트워크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는 책이다. 물리학에서 시작한 이론이 경제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넘나들며 독자가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이론을 접할 기회를 마련한다.

저자 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는 21세 새로운 과학인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의 창시자다. 2002년에 그가 세상에 내놓은 네트워크 이론은 서로 연결되어 복잡하게 발생하는 사건과 현상들을 해독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지도다. 네트워크의 묘미는 '관계'에 있다. 인간관계, 경제 구성요소 간의 관계, 세포와 단백질 간의 관계, 인터넷 웹페이지 간의 관계 등, 관계들은 서로 상이한 시스템 안에 존재하지만, 이 시스템들 사이에서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 네트워크 이론의 핵심이다.

기존의 과학은 세계를 끝없이 헤쳐 나가는 작업이었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원자에서부터 쿼크와 힉스까지 더 미세한 조각을 찾아 해냈다. 이러한 과학 연구방법론의 배경에는 '부분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철학이 숨어있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의 과학이 마치 분해한 장난감을 조립하지 못하는 아이와 같음을 지적한다. 재조립은 분해의 역순이 아니라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잡성(complexity)이라는 새로운 벽과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러한 징후들은 15가지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저자는 월드와이드웹과 웹페이지, 바이러스와 계승, 경영과 산업구조문제, 국제 금융위기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폭넓게 다룬다. 그리고 이야기들을 '챗터'나 '장' 대신에 '링크'라는 용어로 엮어진다. 일견 분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개별 챗터들도 사실은 네트워크 구조로 연결되어 있음을 책의 구성형식에서도 보여준다. 아울러 작가적 묘사가 가미된 역사적 사건들을 예화

로 들어 현상 이면에 숨어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한다.

이처럼 이 책은 어려운 과학이론을 독자가 흥미를 가지도록 쉽게 풀어간다. 그러나 책의 후반부에서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다는 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구조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학, 심리학, 경영학, 경제학, 생물학, 의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등 많은 학문 분야에서 네트워크 이론을 접목시켜 융합학문의 꽃을 피우고 있다.

경영학에서는 혁신의 전과 순서를 '혁신가-초기수용자-초기대다수-후기대다수-늦은수용자' 다섯 단계로 설명한다. 여기서 혁신가(innovator)는 책의 저자 바라바시와 같이 뛰어난 통찰력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혁신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초기수용자(early adaptor)들이다. 이들은 혁신가들이 주장하는 바를 꿰뚫어 보고 이를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혁신가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활용해 세상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이 책을 내놓았던 2002년과 달리 현재는 '네트워크'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친숙해졌다. 그러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잇닿아 있다" 개별 주제와 대상이라는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네트워크의 비밀이 책에서 설명하는 '관계' 속에 숨어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민식 기자

warmhello@hansung.ac.kr

나를 찾는 글쓰기 여행

'나를 위한 글쓰기'에서는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공유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 자체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강좌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진다. 이 과정을 통해 타인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다. 나은미 교수는 "개인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놓이지만, 깊이 있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줄어든다고" 말하며 '나'와 '타인'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성찰적 글쓰기를 통하여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갖는다. 나은미 교수는 자

신의 논문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글감을 찾고 글을 쓰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필자의 흥미와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글쓰기를 통해 얻은 흥미는 글쓰기를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는 곧 지속적인 쓰기 활동과 연결된다. 이로써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나은미 교수는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율'이란 자신의 삶을 보살피는 행위이다. 음악가가 음정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 악기를 조율 하듯, 우리들은 삶에 대한 조율을 통해 '나'라는 개인을 보살필 수 있다.

유동현 기자 ehdkf6392@hansung.ac.kr

대중에게 다가온 예술, 공방문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예술을 소비한다. 대중이 예술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도 예술은 녹아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의 물건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발품을 팔고 해외 사이트를 둘러보는 등 예술적 기호에 따른 대중들의 기대감과 욕구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예술가들은 개인의 아이디어를 고집하여 작품을 생산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대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젊은 예술가들은 멀게만 느껴지던 예술과 창작활동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여왔다. 그들은 낯설게만 느껴지던 예술가의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로 전환을 시도했다. 우리는 카페에 들리듯 예술가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전문 예술가의 도움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예술가와 대중간의 벽을 허물 수 있었던 계기의 중심에는 공방이 있다. 공방은 기존의 예술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작업실의 차원을 넘어서 대중을 작업실로 초대한다. 대중은 공방에서 예술가와 작품에 관련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온 예술가들이 우리학교 주변에도 존재한다. 기존의 고급문화의 이미지를 벗고 대중에게 쉽게 다가간 꼭두도예 장미경씨와 내가 만드는 나만의 가방이라는 생각으로 대중에게 다가온 가죽공예 김지혜 예술가가 있다.

자연의 작품, 꼭두도예의 장미경씨

우리는 생활 속에서 도자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밥그릇, 컵, 찻잔, 화분 등 도자기는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존재다. 이렇듯 우리는 도자기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술로서의 도자기를 접할 기회는 흔치 않다. 도예를 떠올리면 고려청자나 조선백자같은 고상한 것만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도예를 상류층의 문화가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학교 주변에도 이런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꼭두 도예'라는 이름의 도예 공방이 있다. 공방에 들어가면, 눈을 사로잡

는 가지각색의 도예품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작품들을 만든 사람은 '꼭두 도예'의 장미경씨다. 장미경씨는 '꼭두 도예'를 운영하면서 100여회의 단체전에 작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제 10회 개인전도 열었을 정도로 도예에 대해 조예가 깊다.

장미경씨의 작품은 호랑이와 닭 등 동물적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 속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동양적인 색채가 드러난다. 이에 대해 김태원 문화평론가는 "장미경씨의 작품에서는 생명의 에너지가 발산된다"고 평가했다.

장미경씨는 도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동양화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도예가 가장 순수미술에 가깝다고 생각하여 도예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동양화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그녀는 또한 "작품에 나를 투영하면서 나를 찾는다"며 도예 활동을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표현했다.

그녀는 "작품 활동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선호도도 고려해야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다"며, "작가들이 도예문화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러한 철학은 그녀의 작품에 잘 담겨있다.

도예문화는 조선시대까지는 보편적이었으나,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현재 많이 사라진 상태다. 장미경 씨는 "동남아 권에서는 도예문화가 보편적"이라며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과 일본에서 도예는 고급문화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문화적인 인식이 약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도예공방은 기계문명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소재인 흙을 이용해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녀는 "도예문화가 다시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 사람들이 작품 속의 익살스런 모습을 보고 에너지와 웃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성미 기자 seongmi16@hansung.ac.kr



나만의 명품, 블로그의 김지혜씨

가죽은 인류 최초의 옷감이었다. 처음엔 옷에만 사용되었지만, 종이, 가방, 물통 등 활용하는 곳이 다양해졌다. 과거의 가죽은 투박한 형태의 옷감이었지만, 지금은 가방이나 지갑 등에 사용되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재료가 됐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가죽공예가 예술의 한 형태로 등장했다.

우리대학 근처에도 가죽 제품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블로그 가죽 공방'이 있다. 공방에는 다양한 색깔과 질감을 가지고 있는 가방과 지갑 등이 비치되어있다. 이 제품들을 자신만의 개성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블로그 가죽 공방 대표 김지혜 씨다. 김지혜 씨는 성신여대 공예과 강사 출신으로 제품 디자인, 취급 방법, 제작 과정 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녀는 가죽이 가지는 미적 특성에 대해 "가죽은 오래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가죽이 가지는 고유한 색이 나오기 때문에 작품이 더욱 아름답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큼은 그 의미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또 "기존 가죽 제품에서 찾을 수 없는 미적 특성 때문에 공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씨는 가죽의 단순함이 주는 아름다움에도 주목한다. 공방에 있는 작품들은 외관은 단순하지만 완벽한 형태의 대칭성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그녀는 "단순함의 아름다움은 황금비율에서 비롯된다. 황금비율이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는 대상"이라며 "주변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사물은 비율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말했다.

작품들은 단순함에만 치우치지 않고 고급스러운 역시 강조하고 있다. 이 공방에서는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한다. 베지터블 가죽은 가공 과정에서 화학성분이 아닌 식물성 성분을 이용하는 최

고급 가죽 중 하나로 명품백 등에 주로 사용된다. 김지혜씨는 "베지터블 가죽은 고유의 냄새나 문양이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다"고 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그녀는 가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다. 그녀는 "가죽은 어떤 대상과도 어울리는 실용적 소재다. 여러 가지 제품에 가죽이 가지는 고급스러운 특성을 살린다면 평범했던 것도 특별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현 기자 ehdkf6392@hansung.ac.kr



나와 다른 세대를 향해 '문을 열다'

사람의 나이는 이중적이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 앞에서는 꼰대가 되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는 반항아가 된다. 누구에게나 자기보다 젊은 사람은 너무 산만하고 방종하다고 여기고,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앞뒤 똑똑 막힌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나이의 이중성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를 멀어지게 만든다. 그러나 사실 젊은이들을 "철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전의 '나'를 잊었기 때문이며, 늙은이들을 "답 없는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멀어진 세대는 서로를 무시하고 질투한다. 영화의 첫머리에서 "문을 열라고?" (Open the door?)라는 질문이 거듭 반복된다. 다른 세대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이렇듯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결국 세대 간의 소통을 말하고 싶은 걸까. 일면 그러한 소소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영화의 전반부에서 40대 부부 조쉬와 코넬리아가 톱목 튀는 자유로운 영혼의 20대 부부인 제이미와 다비에게 확 빠져버리는 부분까지는 말이다. 기성세대는 젊은 이들로부터 예전의 순수함과 아름다운 자유분방함을 느끼고 있고 있었던 예전의 '나'를 찾아낸다.

그러나 다른 세대를 향하여 "문을 열

다'라는 의미는 단지 젊은 날의 회상에 그치지 않는다. 젊은 날의 '나'를 연상시키던 그 젊은이가 더 이상 나의 모습이 아닌, 그저 그런 늙은이로 보이게 되는 순간부터 열렸다고 생각했던 '문'은 "뿡!"하고 닫혀버린다. 조쉬는 영화의 말미에서 제이미가 성공을 하기 위하여 자기를 이용했다고 확신하게 된다. 기어이 그는 그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찾아내어 제이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교활한 작업을 실패하도록 요구한다. 그는 제이미에게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그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괴로워했다. 문제는 폭로를 한 다음에도, 사람들은 제이미를 교활한 젊은이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조쉬의 한계였으며 아직 '문'은 열리지 않은 셈이다.

다른 세대를 향하여 '문을 연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는다. 우리가 나이를 넘어서서 어떤 세대와 교류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 이룰 때 마음속에서 자리나는 의심과 문을 열었을 때 던져줄 예상치 못한 결과들까지 전부 벗어던지라는 것이다. 비로소 그것이 가능할 때, '젊음'과 '늙음'은 서로의 오해로부터 왜곡된 모습이 아닌 본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다.

강정윤 기자 psyj7795@hansung.ac.kr



▲ 「위아영」(While We're Young)의 한 장면이다.

List

- 「기적의 피아노」(The Piano, 2015) 네드 벤슨 / 제임스 맥어보이, 제시카 차스테인 / 2014
- 「대부」(Mario Puzo's The Godfather, 2014)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 알론 브란도, 알 파치노 / 1972
- 「레드 히트」(Red Heat, 2014) 월터 힐 / 아놀드 슈왈제네거, 제임스 벨루시 / 1988
- 「루시」(LUCY, 2014) 킵 베송 / 스칼렛 요한슨, 모건 프리먼, 최민식 / 2014
- 「미니언즈」(Minions, 2015) 카일 발다, 피에르 고펙 / 피에르 고펙, 마이클 키튼, 산드라 블록 / 2015
- 「손님」(The Piper, 2015) 김광태 / 류승룡, 이성민, 천우희 / 2015
-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The Avengers: Age of Ultron, 2015) 조스 웨던 /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크리스 헴스워스, 마크 러팔로 / 2015
- 「엘리노어 릭비:그남자 그여자」(The Disappearance of Eleanor Rigby: Them, 2014) 네드 벤슨 / 제임스 맥어보이, 제시카 차스테인 / 2014
- 「위아영」(While We're Young, 2014) 노아 바움백 / 벤 스틸러, 나오미 왓츠, 아만다 사이프리트 / 2014
-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 2015) 피트 닥터 / 에이미 포엘러, 필리스 스미스 / 2015
- 「채피」(Chappie, 2015) 닐 블룸캠프 / 휴 잭맨, 샬로 코플리 / 2015
- 「태양의 눈물」(Tears Of The Sun, 2016) 안톤 후쿠아 / 브루스 윌리스 / 2003
- 「피케이: 별에서 온 열간이」(PK, 2014) 라지쿠마르 히라니 / 아미르 칸, 산제이 데트 / 2015
- 「픽셀」(Pixels, 2015) 크리스 콜럼버스 / 아담 샌들러, 케빈 제임스 / 2015
- 「호빗: 다섯 군대 전투」(The Hobbit: The Battle of the Five Armies, 2014) 피터 잭슨 / 마틴 프리먼, 이안 맥켈런 / 2014

